

신약 역사, 문학 및 신학

세션 10: 마가복음 2부, 인자와 메시아의 비밀

Ted Hildebrandt 박사의 글

그는 신약 역사, 문학 및 신학 과목을 수강하는 테드 힐드브란트 박사입니다.

마가복음, 인자, 메시아의 비밀에 대한 10번째 강의입니다.

A. 영웅으로서의 베드로의 소개와 생략 [00:00-3:10]

A: AC **결합**; 00:000-8:39 Peter in Mark

지난번 에 우리가 논의했을 때, 우리는 마침내 마가복음으로 넘어갔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놀라운 종으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가와 마가라는 인물과 젊은 시절의 그의 배경, 바나바와의 관계, 그의 사촌 형,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난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만두고 나서 바울과 요한 마가 사이에 불화가 생겼는데, 그것이 실제로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 말기에 로마에서 베드로와 재회하고, 베드로는 마가를 자신의 아들, 그의 "아들, 영적 아들"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디모데후서 4:11에서 바울과 연결되어 그의 생애 말기에 "나는 마가를 돌려받고 싶다. 그는 사역에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요한 마가의 생애 말기, 즉 바울의 생애 말기에 있었던 큰 분열 이후의 화해를 보여줍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내적 증거의 관점에서 몇 가지 일반적인 것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파피아스가 말했듯이 요한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자, 통역자로서 글을 쓰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쓰고,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을 쓰고 있다면, 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베드로에 대한 몇 가지 내용은 생략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물 위를 걷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셨을 때,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로 걸어갔는데,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배에 머물렀고 베드로는 내렸습니다. 물 위를 걷는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이야기인데, 꽤 흥미롭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왕국의 열쇠에 대한 약속은 여기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베드로는 왕국의 열쇠를 얻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성전세, 마태복음 17장에 이 성전세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주인이 성전세를 내는가?' 베드로는 "물론이죠."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에게 가서 "이봐요, 예수, 성전세를

냈어요?”라고 묻습니다. 예수는 “내려가서 물고기를 잡아. 물고기를 잡아 올리면 동전이 있을 거야.”라고 말합니다. 그 동전은 예수와 베드로만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11명은 아니고, 베드로와 예수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성전세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예수와 함께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영웅이고 예수와 독특한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는 마가복음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나. 베드로의 실수의 포함 [3:10-5:06]

반면에 베드로가 엉터리로 실수한 세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같은 장에서 예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께서는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꾸짖으며 “예수님, 당신은 고난을 당하고 죽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돌아서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절은 마가복음에서 발견됩니다.

변형 도 비슷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변형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 나타나고 예수님은 눈부시게 하얗게 변하셨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언제나처럼 말을 하며 말했습니다. “초막 세 개를 만들고 초막 세 개를 만들자.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당신을 위해.”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와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모세와 엘리야, 아니, 이 사람은 내 아들입니다.” 이 하늘의 음성이 그를 바로잡았습니다. 이것이 변형입니다. 이것 역시 마가복음에서 발견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부인이 있습니다 . 닭이 울고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하고 닭이 울고 베드로가 “당신은 갈릴리 출신이에요. 이 남자를 알죠?”라고 말하는 하녀들에게 주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나가서 몹시 울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해서 뭔가를 망쳤을 때 잘한 것보다 훨씬 더 잘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종종 제가 학생 리뷰를 할 때 , 훌륭한 학생 리뷰가 나오고 나쁜 리뷰가 하나 나오는데, 그 사람이 당신을 혹평하면 기본적으로 수업을 즐긴 수백 명의 학생 중에서 혹평한 사람만 기억하게 되죠. 그냥 우리가 그런 식이에요.

C. 베드로의 환상과 깨끗한 동물과 성경적 정직에 대한 마가의 해설 [5:06-8:39]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기 베드로의 코멘트가 있고, 제 생각에 7장의 이 진술과 관련하여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흥미롭고, 본문 자체에서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 그리고 이것은--조금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을 때, 이

동물들이 내려오고, 거기에는 부정한 동물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하늘의
 음성이나 뭐 그런 것이 "베드로, 일어나서 이 부정한 동물들을 먹어라"라고
 말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에 반대하며 "이봐, 이 입술은 코셔야, 나는
 부정한 것을 만진 적이 없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부정한 동물을
 먹는 것에 정말로 반대했고, 마침내 음성이 "아니, 베드로, 너는 내가
 깨끗하다고 부르는 것을 부정하다고 부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방인과 함께 일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고, 이방인이 코셔를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방인들이
 코셔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에 대해
 작업했습니다. 그들은 "아니요,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코셔 음식을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베드로의 작은
 삽입문인 듯한 이 진술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둔한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외부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그를 더럽힐 수
 없음을 보지 못하십니까? 그것은 그의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의
 뱃속으로 들어가 몸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의회에 다가가면서 사도행전에서 본 이 천상의

환상을 감안할 때 그가 알아차렸을 법한 내용인 듯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서 그 진술을 알아챘을 것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책에서 좋아하는 점은 성경의 정직성과 성실성, 솔직함입니다. 다른 많은 책과 고대 근동 문서에서 위대한 왕은 이 모든 놀라운 일을 행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 전설적인 영웅은 거의 흠 없이 묘사되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가장 큰 사도 중 한 명이라는 것을 봅니다(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와 가장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장 가까웠다는 몇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요한과 논쟁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서 정직하게 말하면, 모든 사도, 교회의 꼭대기에 앉아 있는 이 열두 사람 모두가 이스라엘 지파를 심판하는 열두 왕좌에 앉을 것입니다. 열두 사람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지적하고, 제 생각에는 요점은 인간에서 벗어나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는 문제가 있고, 성경은 역사적으로 정확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눈속임을 하지 않고, 이 위대한 영웅에 대한 전설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영웅이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사마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이 점을 지적하고, 이 문서의 역사성을 지적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서들은 누군가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가복음은 언제 기록되었는가? [8:39-10:58]

B: DE **결합**; 8:39-15:53; **날짜와 기적**

그럼, 마가는 언제 쓰여졌을까요? 베드로, 베드로와 관련이 있는 베드로는 아마도 서기 65년경에 죽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말했듯이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베드로가 마가 복음을 비준하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아마도 마가 복음에 자신의 인가를 내리고, 자신이 쓴 것이 옳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 복음은 65년 이전, 확실히 베드로가 죽기 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연대적 경계가 될 것입니다.

공관복음서 순서, 이 공관복음서는 무엇일까요? 공관복음, 공관-오탁, 오탁은 검안사와 같은 "눈"을 의미합니다. 공관-오탁은 "한 눈으로"를 의미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서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한 눈으로 그리스도를 봅니다. 마가복음의 많은 내용, 아마도 마가복음의 80, 90%(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가 마태와 누가에서 발견되며 마태, 마가, 누가가 공유합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한 같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예수에 대한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당신에게 같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런 다음 요한이 등장하고 요한은 당신의 다른 눈과 같을 것입니다. 깊이 지각을 원하십니까? 두 눈이 필요합니다. 요한은 완전히 다른 요한의 약 90%가 고유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는 우리에게 예수에 대한 한 가지 묘사를 제공하고 요한은 우리에게 다른 하나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놉틱 복음서에서 마가 복음을 우선시할 것입니다. 즉, 마가 복음이 먼저 나왔고 마태 복음과 누가 복음이 마가 복음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 복음은 서기 40, 45, 50 년으로 밀려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가 복음이 첫 번째 복음서라면 마태 복음과 누가 복음은 그 후에 썼습니다. 그러므로 마가 복음이 아마도 가장 이른 시기일 것입니다.

마. 기적과 예언에 대한 비평가들의 반응 [10:58-15:53]

흥미로운 점은 13장 2절에서 마가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 ‘너는 이 모든 건물을 보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기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무너질 것이다.’ ” 예수께서 성전 맞은편 올리브 산에 앉아 계셨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성전이 기원후 70년에 파괴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평가들은 이제 비평가들이 성경에서 싫어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평가들이 성경을 볼 때 두 가지가 그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하나는 기적입니다. 성경의 기적을 보면 비평가들은 기적을 없애야 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그들에게 영적 부활이 됨), 예수가 병을 고치신 것, 어린 소녀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 예수가 나병환자를 고치신 것,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신 것. 그들은 그 기적들을 없애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도 기적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 홍해를 건너신 것,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돌며 성벽을 무너뜨린 것. 수많은 예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기적을 행한 것,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것. 기본적으로 비평가들은 기적을 없애야 합니다. 비평가들은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확립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적 원인과 결과의 법칙, 과학적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그 밖에 있습니다. 기적은 그 밖에 있으므로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고 성경의 기적을 없애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제거해야 할 것은 예언적 예언입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어 열왕기 상 13장에 “요시야가 제단에서 제사장의 뼈를 불사르고” 요시야가 그 후 300년을 더 살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언은 요시야가 살기 300년 전에 이루어졌고, 그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의 이름까지 알려줍니다. 키루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키루스와 이사야서에 나오는 키루스에 대한 예언에 대해 정말 흥분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키루스가 거의 메시아와 같은 인물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종이자 기름부음받은 자입니다. 이사야 시대부터 키루스가 무엇을 할 것인지 이름을 통해 알려줍니다. 그러면 비평가들은 이사야서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나눌 것입니다. 원하는 수만큼의

이사야서를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아니요, 그것은 키루스 시대에 훨씬 나중에 기록되었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서를 같은 방식으로 취급합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예언을 합니다: 안티오쿠스 주현절... 그리고 그들은 날짜를 낮춰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측적인 예언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미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신만이 미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일어난 일이며, 마가복음은 예수가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고, 예수가 죽기 전인 기원후 32년이나 33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를 데려가 헤롯이 두 번째 성전을 개조한 거대한 성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는 “모든 돌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인들이 들어왔을 때(기원후 70년) 그들이 하는 일은 평평하게 놓고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 남쪽 벽 발굴에서 길을 잃다에 가보았다면, 그들은 실제로 두 번째 성전 건설의 일부였던 거대한 바위를 발굴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로마인들은 그 돌들을 밀어내고 60, 70피트 떨어뜨렸습니다. 그들은 로마 도로와 거대한 바위를 쳤고, 아마 5, 6피트 x 5, 6피트(5피트 x 5피트 x 5피트로 시작하면 엄청난 바위입니다)일 것입니다. 60피트 높이에서 떨어뜨리기에는 엄청난 바위입니다. 로마 도로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이런 로마 도로는 이런 평석으로 잘 건설되었고, 그런 다음 이 바위가 거기에 부딪힙니다. 로마

도로에서 바로 이런 구멍이 보이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성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바위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평가 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예수께서 그것을 예측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가진 것은 *vaticinium post eventum*, 사건 이후의 예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가복음은 성전이 파괴된 후에 이것을 쓰고 있으며, 이 말들은 그 후에 예수님의 입으로 다시 옮겨졌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후에 예언이 있었고, 그 후에 그것이 예수님의 입으로 다시 옮겨졌습니다. 비평가들이 이 예언을 제거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는 마가복음이 65년 이전에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서기 70년까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5년 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가복음이 서기 65년 훨씬 이전에 쓰여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비평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언하신 그 위대한 예언에 도달할 때마다 그들은 항상 나중에 본문에 삽입된 사건 이후의 예언으로 갈 것입니다.

F. 마가복음의 로마 청중 - 언어 [15:53-18:55]

C: FH 마크의 청중을 결합합니다. 15:53-25:57

마가는 누구에게 쓰여졌을까요? 누구에게 쓰여졌을까요? 우리는 아마도 유대인이 아닌 독자가 있기 전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제안하려고 했습니다.

교회 역사에 따르면 로마에서 쓰여졌다고 합니다. 초기 교부인 에우세비우스는 사실 초기 교부라기보다는 서기 325년경 초기 교회 역사가였습니다. 2세기 초 파피아스는 마가가 아마도 로마에서 로마인에게 편지를 썼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마태와는 매우 다른 그림을 얻게 됩니다. 마태는 유대인을 위해 쓰여졌고 마가는 로마인을 위해 쓰여졌는데, 매우 다른 관점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의 존재는 확증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베드로전서 5:13을 살펴보았는데, 베드로는 “이봐, 나는 바빌론에 있어. 바빌론에 있는 사람들이 인사를 보내고 내 아들 마가도 인사를 보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빌론이 “로마”를 의미하는 코드워드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 있었고, 그것은 로마인들에게 쓰여졌을 가능성이 매우 큼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로마에 있는 요한 마가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아마도 로마에서 쓰여졌을 겁니다. 비유대인 유형의 예입니다. 그는 번역하고, 마가는 아람어 구절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는 것들 중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 *5장 41절의 달리다 쿨* 에서, 예수께서 어린 소녀를 고치실 것입니다(그녀를 죽음에서 살리실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는 소녀에게 와서 말합니다 . *달리다 쿨* . 즉, *달리다* 는 “어린 소녀”를 의미합니다. *쿨* 은 “일어나, 일어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소녀, 일어나.”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1절에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람어이고 유대인이라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로마 청중(그들은 아람어를 모릅니다)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괄호 안에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구절들을 설명합니다.

보아 *네르게스*라는 단어를 살펴보죠 . 야고보와 요한, 여기에 나와 있고, 3장 17절을 읽어 볼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둘 다 세베대의 아들)이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별명인 보아네르게스]는 [그리고 나서 그는 번역해서]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가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말할 때, 그들의 아버지인 세베대가 천둥치는 사람이었다는 뜻인가요? 여러분은 천둥의 아들들이고, 세베대가 천둥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아니요; 그가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무언가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 당신은 그들의 아버지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마가는 보아 *네르게스*를 “천둥의 아들들”로 번역합니다.

G. 마가복음의 로마 청중층 - 관습, 법률, 지리 [18:55-22:54]

그는 유대인의 관습을 설명합니다. 유대인의 관습, 마가복음 14:12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무교절 첫날, 유월절 양을 제사하는 관습이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유월절 양은 무교절 첫날에 제사됩니다. 무교절은 7일 동안 계속되지만 무교절 첫날은 유월절이며 유월절 양과 출애굽기 12장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무교절 첫날, 유월절 양을 제사하는 관습이 있을 때 ,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에게 ‘어디에 가서 유월절을 드실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양을 제사하는 관습이 있을 때” 청중이 유대인이라면 그런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유대인이었다면 평생 유월절을 지냈을 것이고, 유월절 양이 언제 도살되는지 정확히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 더 큰 내용이 있는데, 7장 2절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살펴보았지만 꽤 흥미롭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의 제자들 중 어떤 사람들이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씻지 않은 손으로).”라고 말했을 때, 괄호 안에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터에서 들어올 때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며 의식적으로 손을 씻지 않고는 먹지 않는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그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방인, 로마인은 유대인들이 왜 항상 손을 씻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거기서 다시 길게 설명을 하며 일종의 비유대적 관점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에는 언급이 없고,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토라,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그 구절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로마 청중에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말할 때, 로마인에게 “율법”이라고 말하면, 그는 아마도 로마에서 진행 중인 로마 상원의 법적 절차를 생각했을 것이고, 모세를 생각했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세를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두 제자를 보내는 것은, 열두 제자를 보내는 것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고 이방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열두 제자를 보내는 것에 대한 그 구절은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는 열두 제자를 보내는 것에 대한 그 모든 것을 그냥 건너뛵니다. 유대인들이 처음에 열두 제자를 보냈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 족속에게만 해당되고 이방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것을 삭제했습니다.

마가는 지리를 설명합니다. 로마인들은 팔레스타인의 지리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구글 지도에 올라가서 그곳이 어떤지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3절에 “예수께서 성전 맞은편 올리브 산에 앉아 계셨을 때에”라고 말합니다. 여기 올리브 산이 있는데, 약 2,700피트 높이이고 성전 산(아마도 약 2,300피트)이고, 골짜기로 내려가 키드론 또는

여호사밧이 반대편으로 올라옵니다. 올리브 산에 올라가면 성전 맞은편에 있습니다. 오늘날의 돔 오브 더 록(Dome of the Rock)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길을 잃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올리브 산이 이 성전, 성전 지역을 내려다보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들이 그것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올리브 산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올리브 산과 헤르몬 산의 차이를 모릅니다. 마가는 “아니, 아니, 성전 맞은편에 올리브 산이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축제를 위해 올라간 유대인에게 올리브 산을 아는 사람에게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H. 라틴어 청중 - 언급된 언어 및 로마어 [22:54-25:57]

라틴어 청중을 위해, 여기 언어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흥미롭습니다. 그는 특정 그리스어 구절을 가져와 라틴어로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유대인 청중을 대상으로 글을 쓴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라틴 또는 로마 청중을 대상으로 글을 쓴다면 로마 맥락을 강조할 것입니다. 따라서 “궁전”을 의미하는 *aulace* 는 그리스어로 “궁전”을 의미하지만 마가는 “프라에토리움 ” *이라고 말합니다* . 그리고 “ 프라에토리움 ” 이라는 단어를 볼 때 , 저는 제 학생 중 일부가 라틴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ium으로 끝나는 것을 보면

확실히 라틴어 용어인 *praetorium* 이며 기본적으로 궁전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5:16을 보면 마가가 그리스어에서 전환했으며, 그는 이러한 종류의 라틴어 어법을 사용하여 *praetorium*을 사용하여 특정 유형의 궁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이해시킵니다. 따라서 이것은 라틴어 또는 로마의 영향을 보여줍니다. 저는 라틴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라틴어를 조금 공부했지만, 라틴어는 그리스어의 절반을 뜯어낸 것 같다고 항상 말합니다. 라틴어를 공부했다면 그리스어를 공부하는 게 매우 자연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여러 면에서 서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또 다른 것이 있는데, 사실 좀 이상합니다. 사실 꽤 재미있는 것 같아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던 키레네 시몬이 있었는데, 그는 너무 심하게 맞아서 간신히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십자가를 골고다로 지고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약해져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은, 그들이 키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온 것입니다. 그는 키레네 출신입니다. 키레네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 손은 아니지만 제 손이 이탈리아의 부츠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은 이탈리아의 부츠이고, 키레네는 지중해 건너편 리비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언급되었습니다. 루포와 알렉산더, 이들은 키레네 시몬의 아이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키레네 시몬과 그의 아이들 루포와 알렉산더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마가는 15장 21

절에서 그들을 언급하고,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들을 언급합니다. 분명 로마서는 로마인들에게 쓰여졌고(그게 어느 정도 말이 되죠), 로마서는 로마인들에게 쓰여졌고 16장 30절에서 바울은 이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마지막에 이렇게 큰 인사를 하는데, 그가 인사한 사람 중 두 명은 루포와 알렉산더입니다. 마가도 그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쓸 때, 루포와 알렉산더가 로마에 있다는 암시가 있어서 로마의 맥락에 들어맞습니다.

I. 개념적 틀과 마가의 기록 목적 [25:57-28:09]

D: IK를 결합합니다. 25:57-35:15; 목적, 복음, 구약 인용

마가 복음은 로마적 개념적 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추상적이지만, 기본적으로 권력의 개념, 다시 말해, 마가복음에서 권력은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모든 일을 권위 있게 권력으로 행하십니다. 로마는 권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게르가사의 게르가사 악마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악마 군단이 돼지에게 던져지고 돼지들이 언덕 아래로 달려갑니다. 마가는 그것을 광범위하게 전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악마를 보게 됩니다. 군중; 예수께서는 너무 많은 군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기적 중 일부를 행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너무 많은 군중이 있어서 배에 오르십니다. 군중: 그것은 로마 장면과 맞습니다. 연회,

그것은 또한 로마와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일종의 추상적, 더 추상적이지만 권력, 악마, 군중, 연회. 그것들은 로마 시나리오에 맞는 종류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마가가 편지를 쓴 대상 독자를 이해하려고 하면서, 마가가 누구인지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이해하려면 저자에 대해 뭔가 알아야 하고, 저자와 독자 사이의 관계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자가 이 독자를 위해 이런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사이의 역학 관계는 무엇이었고, 저자와 독자 모두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도들이 죽어가고 있었고 로마 사람들이 마가에게 와서 “마가, 이걸 써 줄래? 누구보다 베드로를 잘 알잖아. 사도들도 알아. 그들이 주님의 만찬(이런 종류의 모든 것)을 했을 때 네 집에 있었잖아. 마가, 우리에게 복음서를 써 줘.”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이를 먹고 세상을 떠나면서 로마인들에게 복음서를 써서 “이봐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어요.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게 있으면 말해 주세요.”라고 말하라는 부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마크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해석하거나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J. 그리스도의 묘사 - 첫 번째 복음서 [28:09-31:19]

이제 마가복음에서 그리스도가 묘사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할까요? 저는 이 첫 번째 요점을 너무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마가복음은 요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요약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43절에서 베드로는 짧은 설교를 합니다. 약 10절(약 9절) 정도의 짧은 요약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34절 이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요약합니다. 베드로가 한 그 짧은 요약 설교와 마가복음을 비교해보면 마가복음은 손과 장갑처럼 서로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와 사도행전 사이에는 흥미로운 연관성이 있는데, 마가복음은 말하자면 베드로의 복음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의 책을 "복음"이라고 부른 첫 번째 사람입니다. 사실 저는 그것이 장르의 용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복음을 쓸 거야"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태는 복음이었고, 마가는 복음이었고, 누가는 복음이었고, 요한은 복음이었습니다. 문학적 장르로서의 복음은 그가 언급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것을 첫 번째 복음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식별합니다. 그는 그것을 *eu-aggelion* 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복음이며, 그리스어로 "복음"을 뜻합니다. *Eu*는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완곡어법을 사용하면 무엇이 완곡어법일까요? 누군가가 죽었고 그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면 완곡어법이 아닙니다. *Croaked*는 매우 부정적인

의미이므로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그들은 세상을 떠났다.” 즉, 그들은 세상을 떠났거나 안식처로 갔다거나 그런 식입니다. 완곡어법은 무언가에 대해 좋은 말을 할 때 사용합니다. 추모사, 누군가가 추모사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제 아버지는 돌아가신 후에 아무도 자신에 대한 추모사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추모사에서 *eu* 는 “좋은”을 뜻하고 *logy*는 *logos* 와 비슷해서 “좋은 말”을 뜻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추모사인 좋은 *logos*를 말하죠. 그리고 여기 *eu-aggelion*이 있는데, *angel*과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Angel*? 사실 그리스어에서 첫 번째 *g*는 *n*이 되므로 *eu-aggelion* 이 되고, *eu-aggelion* 은 “좋은 메시지”를 뜻해요. 천사란 무엇일까요? 천사는 단순히 메신저입니다. *aggelos* 라는 단어는 “메신저”를 뜻해요. 반드시 날개가 있다는 뜻은 아니고, 그저 메신저를 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좋은 메시지에요.

복음은 선포입니다. 마가가 쓰고 있는 것은 좋은 소식이나 좋은 메시지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실제로 그의 책의 첫 구절에서 그것을 그렇게 식별합니다.

K. 마가는 이사야를 인용한다[31:19-35:15]

이제 이 첫 번째 구절과 관련된 다른 몇 가지 사항을 마가복음에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차를 세우고 마가복음의 첫 번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첫 번째 구절을 꽤 많이 살펴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첫 번째 구절에서 자신이 하는 일을 설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또는 *eu-aggelion*, 좋은 소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의 시작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에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내리니 그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부르는 자의 소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를 위하여 곧은 길을 내라.’” 그래서 요한은 광야 지역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첫 번째 구절에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러분이 얻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요한 마가는 성경을 잘못 인용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읽어보고 요한 마가가 여기서 실수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에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내리니 그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는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에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내리라’” 이것은 이사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말라기서 3:1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 그는 선지자 이사야가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내리라”고 말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말라기서에서 나온 것이지 이사야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서 3:1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어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리라.” 그가 인용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찾는 주께서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너희가 원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가가 구약성경에서 잘못 인용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실제로 그것이 이사야서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말라기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솔직한 진실을 아십니까 ? 이건 말라기서에서만 나온 게 아닙니다. 이 “보라 내가 이 사자를 내 앞서 보내노라”는 말은 사실 출애굽기 23장에서 올려 퍼지는 말입니다. 20절인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3:20에 올림이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에서 구체적으로 올려 퍼지고 그 다음 구절은 뭐라고 합니까?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내어 너희 길을 예비하게 하리라” 이게 말라기입니다. “광야에서 부르는 자의 소리”는 이사야 40:3입니다. 마가가 여기서 하는 것은 합성 인용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사야가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말라기는 누구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모를 것입니다. 로마에서는 말라기를 모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말라기가 이탈리아 선지자 중 마지막이라고 종종 말했거든요. 그의 이름은 말라기지만 저는 그를 말라기라고 부르는데, 이탈리아 예언자 중 마지막이라고 부르지만, 이탈리아인들은 그를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농담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것은 그가 출애굽기의 생각을 되뇌는 합성 인용문입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말라기에서 인용하고, 다음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세레자 요한을

언급하는 이사야의 인용문을 섞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사야가 말했듯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는 나열하지 않고 ‘사실 저는 출애굽기, 말라기, 이사야를 합성 인용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사야를 그가 언급하는 큰 장소로 인용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처럼 모든 세부 사항에 각주를 달아야 하는 각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가 인용하는 주요 인물만 인용하고 있습니다.

L. 마가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증함 [35:15-40:13]

E: LN을 결합합니다; 35:15-46:13; 마가복음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하지만 지금 제게 흥미로운 점은 그 시점에 길을 준비하는 사자가 인용문에 전환이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 인용문은 실제로 말라기를 정확히 인용한 것이 아니고, 저는 알고 싶습니다. 인칭 대명사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인칭 대명사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1인칭 대명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우리에게는 2인칭 대명사가 있는데, 그것은 “당신”이고, 3인칭 대명사는 “그, 그녀” 또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1인칭), 당신(2인칭), 그/그녀/그것(3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세요. 그는 “나는 내 사자를 당신보다 앞서 보낸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당신”이라고 하지만 말라기로 돌아가면 말라기는 실제로 무엇을 말합니까? 말라기가 실제로 말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말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글썄요, 그것은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야훼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주께서 말씀하시며, “내가 내 사자를 보내어 길을 예비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 “내 앞에.” 다시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어 길을 예비하게 하리라” 마가복음은 “그 사자가 너희 앞에 길을 예비하리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전능하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사자를 보내어 나를 위해 길을 예비하게 하리라” 마가복음은 주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어 너희 앞에 길을 예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예수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두 번째 구절은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확언입니다.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사자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앞서 가는 사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 그래서 대명사의 전환은 훌륭합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에게 적용되었던 야훼, 여호와를 마가복음의 바로 앞부분에 있는 예수님에게 적용합니다.

재밌는 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연구하고 싶을 때 항상 요한복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와서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말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항상 요한복음으로 가요. 하지만 말라기서에서 인용한 이 대명사를 이렇게 바꾸는 부분에서,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정말 훌륭한 인용문이에요. 사실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자가 나보다 먼저 길을 예비하는데, 이것은 야훼/여호와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그들이 이것을 약어로 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야훼는 모음이 없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그렇게 쓰고, 일부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발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적절한 맥락에서 발음하여 신성모독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모음을 빼서 전혀 발음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그들은 *Adonai* , 즉 주님을 말하게 됩니다. *Yahweh*를 말하는 대신 *Adonai*, 즉 주님을 말하거나 *hashem* , 즉 "이름" 또는 그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말합니다 . 그래서 사자가 나 여호와 앞에서 길을 예비하는데, 그것은 예수이고 마가복음은 그것을 이어받아 인용문을 바꿉니다. 여기 마가복음 1장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그것이 이사야에서 나왔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일종의 결합된 인용문입니다. "주님 앞에서 길을 예비하라." 길을 예비하는 주님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예수 앞에서 길을 예비하는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예수는 여기서 야훼와 연관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마가복음 1장 4절의 다음 구절에서 소개되는 세례자 요한일 것입니다 .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인용문, 말라기와 이사야의 이 두 인용문 모두 예수를 야훼로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이 “나보다 먼저 길을 예비하기 위해 그의 사자를 보낼 것”이라는 것은 그 “나”가 예수이지만 또한 야훼이고, 사막에서 부르는 자의 음성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이며, 세례자 요한이 그것을 성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꽤 멋진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M. 복음이란 무엇인가? [40:13-43:29]

이제 복음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왜 “좋은 소식”이라고 부르나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좋은 소식, 전차가 온다, 좋은 소식”에 대해 생각할 때 백만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삶과 죽음의 문제, 죽음이 통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파괴하셨습니다. 죽음은 결국 승리하지 못합니다. 죽음은 결국 승리하지 못하지만 부활이 있고, *아나스타시스* 가 있고 ,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죽음, 죄와 용서를 이깁니다. 아니면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정죄했습니다. “모두가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죄의 삯은 사망이니라.” 그리고 일어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우리 죄의 무게를

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는 “세상의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짊어지는 죄. 우리를 죽음으로 정죄하는 죄의 삶,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죄를 없애셨습니다.

공허함과 사랑(예수의 위대한 메시지); 알다시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서로 사랑하라, 우주에서 우리가 얼마나 외로운지, 우리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외로운지 깨닫는 공허함과 소외감과 대조됩니다. 예수는 사랑의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사랑의 유대감을 형성하여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 주십니다. 삶의 숨결, 알다시피, 삶의 숨결은 그저 지나가 버립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제가 고든 대학에서 일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세상을 떠나 1~2년 안에 다른 곳으로 간다면 아무도 당신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게 될 겁니다. 아무도 정말로 알거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요성, 중요성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중요성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삶의 숨결에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화해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소외되었던 화해가 이제 화해입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갑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고 이제 갑자기 성경

전체가 이 좋은 소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났지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오셔서 돌아갈 길을 만드시려고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되실 수 있고, 영원히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해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이고, 성경이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으로 끝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람이 재결합하는 것을 보게 되는 이유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고, 이런 종류의 개념은 좋은 소식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고, 그 외에도 백만 가지가 더 있습니다(이것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몇 가지 추상적인 것들일 뿐입니다).

ㄴ. 마가복음에서의 예수의 인성과 신성 [43:29-46:13]

이제 마가복음은 흥미롭습니다. 마태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묘사하고, 요한은 많은 것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묘사합니다. 마가는 그리스도를 매우 인간적인 방식으로 묘사합니다. 마가복음 2:16에서 예수께서 먹고, 15장 36절에서 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셨는데, 예수께서 배고프신 적이 있습니까? 11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배고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 사람들을 만지시고, 1장 41절에서 사람들을 만지십니다. 그런 다음 3장 5절(여기에 나열해 두었습니다)에서 예수께서

화를 내십니다. 우리는 이전에 손이 변형된 사람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그를 예수께 데려와 안식일에 고쳐 주시겠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 사람아”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노여워하시는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예수께서도 그들을 노여워하시는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내신 것은 그들이 손이 변형된 사람 때문에 안식일을 존중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손이 변형된 사람을 고치시고, “안식일에 선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바로잡으십니다. 그래서 이건 흥미로운데, 요한복음과 복음서에 대해 많은 글을 쓴 위대한 로마 가톨릭 신학자 레이먼드 브라운은 우리에게 바울만 있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는 그리스도에게 얼굴을 씻웁니다. 저는 마가가 그리스도를 매우 인간적인 방식으로 묘사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마가복음에서 신성합니다. 네, 우리가 말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세례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길 앞에서”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편 2장 7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시편 2장에서 인용한 또 다른 구약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사실, 당신은 이것에

들어가서 시편 2장에 대한 모든 것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아들”은 누구입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고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또한 그가 세례자 요한에게서 올라올 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진술과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주시고 이 땅에 구원과 정의를 가져올 고난받는 종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런 종류의 것, 그래서 예수께서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집니다.

오. 예수가 자기를 인자로 밝히심 [46:13-50:30]

F: 합치다 또는; 46:13-62:54; 인자

이제 여기서 주제를 바꾸고 싶은데, 마가복음에 대해 다루고 싶은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많은 개인적 배경(로마 청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크게 등장하는 두 가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수의 자기 지정입니다. 예수는 자신을 어떻게 식별합니까? 예수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예수는 자신을 여러 번 부르며, 자기 식별에 관해서는 자신을 인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살펴보고 논의하고 싶습니다. 예수가 이 “인자”라는 용어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자라는 용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선 “아들”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무언가의 아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때때로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라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라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래서 예수의 경우, 요셉은 그의 친아버지는 아니었지만, 그는 일종의 입양아(의붓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아시다시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실제 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라는 용어는 직접적인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아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천 년을 건너뛸 수도 있어서 다윗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아들은 1,000년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1,000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아들(기원전 2000년)이 되는 것도 또 다른, 약 2,000년입니다. 그러므로 “의 아들”은 반드시 “의 직계 아들”이 아닙니다. “의 아들”은 1,000년을 의미할 수 있고, 당신이 후손이고, 직계 아들을 의미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영적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13에서 마가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디모데, 고린도전서 4:17에서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이고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는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따라서 “의 아들”이라는 용어는 “의 영적 아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문자 그대로의 아들(1세대처럼)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더 광범위하게 자손이나 후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

마지막 으로 (아마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 아들”은 ~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 아들”은 “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천둥의 아들들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천둥 같은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싶어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싶어했다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둥의 아들들”입니다. 바나바; *바나*는 “의 아들”을 의미하고 *바스*는 “위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격려의 아들” 또는 “위로의 아들”입니다. “의 아들”은 바나바가 격려하는 유형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그 문구를 사용합니다. 아들의 - 그리고 우리는 보통 제 머릿속에서 부정적인 맥락에서 그것을 사용하지만, 아들의 무언가 또는 다른 것. 당신은 그들의 부모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그가 사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과 마태복음 16장과 마가복음 2:10에서 카이사레아 빌립보에 대해 명확히 언급합니다. 예수님은 카이사레아 빌립보에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인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당신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구절로 자신을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P. 인자의 뉘앙스 - 정체성과 권위 [50:30-53:36]

이제 저는 이 용어인 인자의 다섯 가지 뉘앙스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다섯 가지 뉘앙스, 또는 다섯 가지 측면이 있을 것이고, 저는 이 두문자어 IASED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를 인간과 동일시하는 것, 즉 그가 인자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참으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인자는 매우 인간적이며, 그가 인간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며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가 인간과 동일시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는 집이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인간과 완전히 동일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권위, 이 인자의 또 다른 측면은 권위에 대한 개념입니다. 마가복음 2

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말하기가 어느 것이 더 쉬우냐”
 거기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은 중풍병자입니다. 걸을 수 없습니다.
 그는 네 명의 친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그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를 이 요람에 태웁니다. 그들은 집이
 사람들로 가득 차서 요람을 예수님께로 옮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곳이 지붕이 가파른
 뉴잉글랜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눈이 너무 많아서 지붕이
 평평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평한 지붕 위로 올라가는데, 그것은 진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거기 있는 집은 모두 진흙과 바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지붕을 파고 내립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 설교할 때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항상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지붕을 파고 그 모든 진흙과 석고가
 물건 위로 쏟아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은 이 사람을 밧줄이나 무언가로
 매트 위에 내려놓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무릎 위에요. 모두가 예수님이 “
 일어나 걸어라. 내가 방금 너를 고쳤노라”고 말씀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
 중풍병자에게 ‘네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쉬운가? 아니면 ‘
 일어나서 네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쉬운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그는
 중풍병자에게 이르노니, 일어나서 네 자리를 가지고 집으로 가라.”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와, 그는 죄를 용서할 수 있구나?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권위에 대한 큰 요인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예수는 또한 “일어나서 자리를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마비 환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이 세상에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인자라는 용어는 권세의 위치입니다.

Q. 인자의 고난의 뉘앙스 [53:36-57:45]

이제 이것은, 제 생각에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메시아 벤-다윗이라고 불렀던 것이 있습니다. *벤*은 ‘의 아들’을 의미하고, 메시아, *메시아*는 기름부음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메시아, 기름부음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벤-다윗은 사무엘하 7:14에서 “다윗의 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 주리니 그 집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네 후손 중 한 사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좌에 영원히 앉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메시아가 오시고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누워서 정의와 공의의 지팡이로 통치하고, 평화와 조화가 땅에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이 기대해야 할 이 오실 메시아의 미래에 대한 이 모든 놀라운 예언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그리고 이 퍼즐은 구약성경에서 메시아의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부정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받는 종 메시아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별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도살당하는 양과 같을 것이요 ... 그의 채찍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의 채찍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양과 같이 우리 모두가 길을 잃었지만 ‘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어떤 사람들은 그때 메시아 벤-요셉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감옥에 갇혔는지 기억하십니까? 요셉은 노예로 이집트에 팔렸고 요셉은 감옥에 갇혔고 그들은 그것을 요셉의 아들인 메시아 벤-요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에서 ‘인자’라는 용어는 고통이라는 개념을 포괄합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아, 이 인자는 메시아 벤-다윗이 아니라 통치할 왕이 오는 것을 의미하지만, 또한 이 메시아 벤-요셉, 고통받는 종을 의미합니다. 이제 마가복음에서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구절들은 정말 훌륭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데리고 가서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수께서 인자이시며 고난이 그 일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8:31, 9:31, 10:31에 세 구절이 거의 연달아 나옵니다. 9:31에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묻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 제자들이 묻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나중에 그 두려움의 개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 다음 10장 33절에서 그는 배신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고 가서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다시 한번 자신을 인자로 자기 정체성을 나타냄]가 대제사장들, 곧 율법 학자들에게 배신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를 사형 선고하고 넘겨줄 것입니다.’ ” 기본적으로 배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를 배신하고, 이방인들이 그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며, 사흘 후에 그는 죽음에서 부활할 것입니다[좋은 소식]. 그래서 인자는 마가복음에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마가복음의 큰 주제입니다.

R. 인자의 뉘앙스 - 종말론적, 신적 [57:45-62:54]

이제, 이건 정말 까다로운 문제이고,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차려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적 인자입니다. 종말론적이라고 말할 때, 그 용어로 무슨 뜻인가요? 종말론적이라는 용어, *에스카톤*은 "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은 종말에 대한 연구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어떤 교회들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로 좋아하는 것이 우스운데, 모든 것은 바울의 예수 관점을 통해 이해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성경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로 통해 이해하고 그런 종류의 해석학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종말론에 더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과 관련하여 성경 전체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양한 학파를 볼 수 있고, 다양한 학파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로 강조하고 다른 학파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강조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 성경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이 두 권의 책을 사용해서 성경을 이해하기보다는 쓰여진 대로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종말론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예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61; 이것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의 일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물었습니다. "네가 축복받은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는 *메시아* 이고 , 네가 축복받은 이의 아들 메시아냐? '내가 그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인자를 볼 것이다." 그가 어떻게 바꾸어 말하는지 보세요. 네가 축복받은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축복받은이라는 말은 신에 대한 용어로 사용됩니다(너는 신의 아들인가?). "내가 그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인자가 권능 있는 이의 오른편에 앉아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대제사장은 옷을 찢었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증인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의 신성모독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신성모독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글썄요, 예수께서 다니엘 7:13에서 "너희는 구름 속에서 오는 인자를 볼 것이다"라고 인용하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니엘 7:13(구약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구약에서 누가 구름을 타고 왔습니까? 누가 구름을 타고 왔습니까? 누가 구름의 병거를 타고 왔습니까? 글썄요, 당신은 구약에서 구름을 탄 사람이 바알이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구약은 시편 68편과 같이 '여호와께서 구름을 타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곳에서 그것을 바로잡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야훼, 주님은 구름을 타시는 분입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당신이 인자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인자"입니다. 여러분은 구름 위로 내려오는 인자를 보실 겁니다. 제사장들은 이해했고, 대제사장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다니엘서에서 인자로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최후의 심판을 위해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옷을 찢고 “이것은 신성모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부르지 않겠지만, 예수께서는 왜 그가 겹을 먹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인자의 구절을 인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자라는 칭호는 다니엘 7:13에 언급되어 있고, 구름 위로 오시는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신성모독을 들었느니라” 예수께서 이 용어, 인자를 자신의 신성을 언급하는 데 사용하는 방식이 아름답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이것 때문에 겹을 먹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요점입니다(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요점과 거의 같습니다). 즉, “인자”라는 용어는 실제로 신을 의미하거나 신을 참조합니다. 그래서 하늘 구름 속에서 오는 인자의 생각은 실제로 신을 참조합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용어는 많은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인간과 동일시됩니다. 그는 완전히 인간이며, 그는 느끼고, 머리를 돌 곳이 없습니다. 그는 권위 있고 , 그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고치고, 그는 죄를 용서합니다. 그는 고통받는 종이며, 그는 메시아 벤-요셉입니다. 그는 고통받고, 배신당할 것입니다. 그는 종말론적이며, 그는 세상의 끝에 하늘 구름 속에서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인자는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 “인자”라는 용어의 측면입니다.

그것은 복잡한 용어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는 용어로 설명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용어입니다.

S. 메시아의 비밀은 무엇입니까?[62:54-64:58]

이제 우리의 다음 큰 주제는 - 몇 분만 더 이야기하고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이것은 메시아적 비밀이라는 개념입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왜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메시아적 비밀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는 왜 사람들에게 자신이 한 일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는 누군가를 고쳐 주신 다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보통 그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는 보통 모든 사람에게 다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일종의 역심리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에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당신이 그 접근 방식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어보셨다면 예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11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령들이 그를 보고 엎드려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더 명확한 진술은 무엇일까요? 귀신들이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4에서 예수님이 나병환자를 고치실 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곧 그를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제사를 드려 깨끗함을 증거하여 그들에게 보여라.’ 그러나 그는 나가서 자유롭게 말하고 소식을 퍼뜨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방송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더 이상 공개적으로 마을에 들어가실 수 없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군중이 너무 많아서 그가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사방에 그 일을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신 이른바 메시아의 비밀을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다. 메시아 비밀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 [64:58-70:48]

G: ST를 결합합니다. 62:54-70:48; 메시아의 비밀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단일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세 가지 다른 청중을 포함합니다. 청중 중 하나는 그가 치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가 치유한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고, 예수께서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그들의 나병을 깨끗이 하셨습니다. 그는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제사장이 네가 깨끗하거나 더럽다고 선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성경에서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치유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예수께서 마술사로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고, 그가 마술사이고 그들에게 마술을 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그에게 오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치유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는 문제 중 하나는 치유받은 사람들이 나갔을 때, 예수께서 더 이상 마을에 들어가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군중이 너무 많아서 그분은 마을에 들어가실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분은 마술사로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유받은 사람에게 “알겠어요, 내가 당신을 고쳤다는 걸 알지만, 모든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그들이 내가 모든 사람을 고칠 거라는 기대와 내가 마술사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악마들입니다. 악마들은 여러 번 쓰러져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악마들이, 악마들이 사탄과 모든 악의 세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나쁜 홍보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 악마들이 내가 누구인지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쁜 홍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히틀러가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히틀러는 600만 명을 죽인 후에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쁜 사람이 당신에 대해 좋은 말을 하면 아마 당신도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그런 종류의 홍보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마들은 거짓말쟁이이고 사기꾼이며 사악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들이 사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는 그들의 사악한 말에 대한 증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마들아, 내가 신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그건 너희 영역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도, 이게 흥미로운데, 제가 이 구절을 찾아낼 수 있는지 봅시다. 제자들과 함께한 9장, 마가복음 9:9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본 것(그들은 방금 변형을 보았습니다)을 인자가 죽음에서 부활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무슨 뜻일까요? 저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많은 곳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여전히 누룩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런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변형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엘리야, 예수님을 위해 세 개의 초막을 짓고 싶어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라는 것을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대체로 그는 제자들에게 부활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후에 그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누구였고, 무엇을 운명지어지고, 부르심을 받았고, 무엇을 하도록 의도되었는지에 대한 진정한 비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성령의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세 그룹의 사람들에게 이 메시아적 비밀에 대해 언급하면서 “모자 밑에 숨겨두세요”라고 말합니다. 치유받은 사람들, 예수님은 마술사로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악마들, 예수님은 나쁜 교제 때문에 그들의 승인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주로 제자들이 변형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해야 했고 더 잘 이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제가 다루고 싶은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가복음의 인물, 바울과의 관계, 베드로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처음 몇 구절을 살펴보았고, 마가복음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했는데, 그 예언은 출애굽기와 말라기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자 여호와로서 길이 예비된 분으로 훌륭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인자”라는 용어도 살펴보았습니다. 메시아적 비밀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는 마가복음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가복음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Jesse Steele이
필사 Ben Bowden
이 편집 Ted Hildebrandt가 편집한 Rough